

광암 이벽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 『성교요지(聖敎要旨)』를 중심으로-

송 의원(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철학 박사과정)(대1-3)

I. 들어가는 말

광암(曠庵) 이벽(李穡, 1754-1786)¹⁾의 『성교요지(聖敎要旨)』는 이승훈의 문집 『만천유고(蔓川遺稿)』 속에 수록된 한시 교리서로 『천학초함(天學初函)』²⁾을 읽은 뒤 저술한 것이며, 조선의 지식인에게 널리 유행했던 교훈문학(敎訓文學)의 형식을 취했다.³⁾ 『성교요지』의 주(註)는 이벽이 『성교요지』를 요약한 내용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한 주관적인 서술로, 유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

『성교요지』는 총 49장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서술한 1장부터 30장까지의 전반부와 31장부터 마지막 49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김정수 1984, 358-359). 전반부의 주요 내용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상제(上帝)⁴⁾, 그리고 계시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예수(耶穌)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선포 등 구속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따라가며 서술하였다. 후반부는 하늘·땅·시간·사람 등 우주만물의 갖가지 사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천주의 속성과 업적을 높이며 인간의 회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이런 『성교요지』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조금의 시각차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벽의 천관이나 사상, 동서문화의 융합 등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⁵⁾ 그러나 필자는 이벽의

- 1) 광암 이벽은 조선시대의 전통적 유교 사상에 반기를 들고, 이질적인 서구의 기독교 사상을 도입하여 침체한 조선 성리학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인물이다. 이벽은 영조 30년(1754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경주 이씨이며, 호는 광암, 본명은 덕조 또는 벽이다. (윤민구 2002, 115-119; 금장태 2004, 202-206).
- 2) 『천학초함』은 본래 명나라 이지조가 여러 가지 서학서들을 읽고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종교와 윤리적인 부분을 리(理)편으로 분류하고, 과학과 기술에 관한 부분은 기(氣)편으로 분류하여 엮은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이다. 리편에는 『서학법』, 『기인십편』, 『교우론』, 『이십오언』, 『천주실의』, 『변학유독』, 『칠극』, 『영언려작』, 『직방외기』가 들어있으며, 기편에는 『태서수법』, 『혼개통현원설』, 『기하원본』, 『표도설』, 『천문략』, 『간평의』, 『동문산지』, 『측량법의』, 『환객교의』, 『구교의』가 들어있다.
- 3) 『성교요지』의 한문본 첫머리에는 “讀天學初函 李曠庵作註記文”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이벽이 『천학초함』을 읽은 뒤 주석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장태는 『천학초함』이 예수회의 보유론적 교리서로서 유교와의 조화와 적응을 지향하는 교리서인 반면에, 『성교요지』는 유교적 의식이 거의 배제된 천주교 교리서라는 점에서 『천학초함』을 읽고 나서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금장태 2004, 205).
- 4)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천주(天主)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제(上帝) 또는 상주(上主)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필자는 『성교요지』의 원문에 따라 하나님을 상제 또는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또한 이벽이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 5) 이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경원, 「광암 이벽의 천주사상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남상범, 「이벽의 「성교요지」에 나타난 하느님 이해와 토착화 원리에 관한 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이석균,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교리 이해 : 李穡의〈聖敎要旨〉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

관심이 기독교의 상제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설명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구원(靈魂救援)의 단계⁶⁾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성교요지』를 기록하였다고 본다.

『성교요지』는 상제가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 상제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을 다루고 있다.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교의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여 인간과 세상의 구원자로 보았다. 또한 그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특히 『중용(中庸)』에 보이는 성(誠)의 가르침을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결합으로써 예수를 성자(誠者)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아야 될 수양의 목표로 설정하였다.⁷⁾ 그는 『성교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꼼꼼히 살피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의인 노아’에 비유하면서 참 신인(神人)으로 묘사하기도 한다(이성배 2001, 72-73).

특히 이벽은 신약의 복음서를 행적별로 재구성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진정한 선비가 되는 길임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필자는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이벽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구원자 그리스도

이벽은 『성교요지』 1장을 구약성경의 ‘창세기 1-4장’을 바탕으로 유일진신(唯一眞神)⁸⁾인 상제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 상제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재자(主宰者)로 서술하였다(이벽 1986, 36-42). 그리고 인간은 선한 창조를 벗어나 죄를 짓게 됨으로서 상제와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서술하였다(이벽 1986, 36-38).

2장에서는 창세기 4-9장을 바탕으로 가인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확산을 설명한다(이벽 1986, 40-42). 이벽은 상제가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인 노아를 선택하였다고 본다. 그는 노아를 통해 죄의 확산을 막고 세상을 구원할 의지를 보였다. 여기서 이벽이 『성교요지』에서 ‘의인 노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한없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 중국 고대의 홍수와 혼

원』(2000)이 있다. 간접적으로 다룬 논문 : 오규현, 「南人の家系와 天主教 受容」, 『서강대학교 대학원』(2008), 송석준, 「韓國 陽明學과 實學 및 天主教와의 思想的 關聯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김옥희, 「서학 수용과 그 의식구조-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1973) 등이 있다.

6) 원재연은 『성교요지』의 가장 큰 논의를 ‘영혼구원’을 통한 인간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고 본다(원재연 2007, 19).

7) 이벽은 인간이 창조주인 상제(上帝)의 피조물임을 최초로 이해하고 조선인들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신(神)의 위치를 정립하였다. 이는 구원자인 그리스도였으며, 성(誠)을 실천한 성인(聖人)이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인 인(仁)과 『중용(中庸)』의 성(誠) 개념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성(誠) 개념을 통해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성인을 만났다.

8) 유일진신(唯一眞神)은 ‘유일한 참 신’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뜻한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유일진신을 ‘유일신’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벽이 『성교요지』에서 사용한 유일진신 또한 기독교의 ‘유일신’을 뜻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마테오리치 2003, 62).

란, 무질서를 다스린 우왕(禹王)의 역할과 비슷한 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배 2002, 265). 이벽은 노아와 같은 난세를 극복할 의인 즉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를 예표(豫表)한 것이다.

3장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생략하고 곧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거처오륜(五倫)에 머무신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벽 1986, 42-44). 이벽의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肉化)을 빌려서 이 땅에 몸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교의 오륜사상에 결부시킴으로서 도덕적 기준을 완벽히 갖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상주께서 예수님을 강생하시어 인류를 구제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대개 세인의 악의 길에 빠져 허덕이며 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함을 가련하게 생각하시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愛子)을 보내시니, 이분은 만세의 구주이시다(이벽 1986, 45).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완성된 분으로 간주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죄 문제까지도 철저히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보고 있다. 이는 유학에서 지향하는 성인의 역할을 뛰어넘는 이벽만이 내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벽은 4-7장까지의 내용을 사복음서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肉化)와 죄인을 용서하고 대신 죽은 분으로 본다(이벽 1986, 46).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구세주 즉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아기 살육으로부터의 도망, 마귀에게 시험받으심을 경험한 분으로 묘사된다(최갑중 2005, 99-114). 이벽의 이런 묘사는 동양적으로 보면 천명을 수행하는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신비적이며 초월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벽이 『성교요지』를 통해 예수(耶穌)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救主)로 고백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벽은 ‘유일신’이자 ‘창조신’으로서의 상제(上帝)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분으로 보고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인격신으로 본다. 사실 『성교요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신(神)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볼 때 『성교요지』의 상제는 단순히 주재천(天)⁹⁾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인격적의 의미의 신(神)¹⁰⁾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교요지』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희생제사가 묘사되어 있다.

은혜로운 비가 내리고, 자비로운 구름 가운데 진동하는 우렛소리로 온 세상 사람에게 권능을 보이셨도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제단을 쌓아 약속의 궤와 제기를 채우시도다 (이벽 1986, 70).

9) 다산은 천의 종류를 유형천, 주재천, 역리천으로 구분했는데, 이벽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재천에 인격성을 더 강조하였다.

10) 이석균은 이벽의 신 이해를 ‘유교의 신 이해’를 넘어서서 신앙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이석균 2000, 60).

이벽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고 고난당했으며,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마침내 부활시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었다.

무덤을 열고 시체가 소생하여 공중을 넘어 하늘로 승천하니 장엄한 보좌에 앉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마련하시네(이벽 1986, 72)

이는 아무런 결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심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벽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교적 신(神)이해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성인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도덕적 본성을 소유한 성인이면서 인간의 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였다.

III. 성자(誠者) 그리스도

『성교요지』에서 소개한 예수(耶穌)는 사실상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한 성인(聖人)으로 볼 수 있다. 성인은 지고한 위치의 인격자이자 우주의 진리를 체득한 사람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인격적인 소유자를 말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관은 다분히 도덕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본성을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비롯된 것이다(시마다 겐지 2003, 44-46).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성인(聖人), 군자(君子), 전인(全人), 완인(完人), 대인(大人)으로 부른다.

공자는 성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성인의 속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사람에 만족하고자 했기에 자기 자신까지도 스스로 성인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성인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거늘, 군자다운 자라도 만나 본다면 만족할 것이다(논어, 술이편, 99)

성인(聖人)에 대한 언급은 맹자(孟子)에게 와서 빈번이 나타난다. 맹자는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순(堯舜)과 주공(周公)을 제시한다. 맹자는 성인을 단지 선생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제한된 범주를 극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모든 세대에 성인이 된다고 보았다(줄리아 칭 1994, 119-121).

한편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를 유교가 지향하는 인격적 완성자인 성인으로 본다. 유교에서는 인(仁)을 기독교에서의 사랑이나 자비라는 덕목과도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가 인(仁)을 실천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인은 아들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 아들의 인(仁)을 일컬어서 효(孝)라고 할 수 있다(이성배 2001, 247). 그러므로 이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의 가르침에 나오는 성인·군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먼저 『논어』에 나타난 인(仁) 개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논어 안연편 139).

인(仁)이란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논어 안연편 131).

인(仁)이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恕)이다
(논어 안연편 132).¹¹⁾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원리이며 인간을 완성하는 길이다. 유교의 인(仁)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 완성의 길로 제시되는 최고의 덕목이다(줄리아 칭 1994, 51-53). 그러나 유교와 기독교의 자기완성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 유교의 자기완성은 능동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 하늘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자기완성은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에 대한 묘사를 기본적으로 유교적 인간 완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했다. 그는 『성교요지』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드러낸다.

신화와 각료를 거느리고 태평성대를 이룩하신 우탕 요순과 같은 어지신 임금이요, 세상을 경계하고 바로잡기론 증유와 민손, 공맹 같으신 성현이시다(이벽 1986, 13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성교요지』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벽의 주제였다. 이벽은 『성교요지』의 첫 장을 구속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이벽은 『성교요지』를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성인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성교요지』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성교요지』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한 것과 같이 단순히 성경의 내용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용서하고 대신 대속의 높은 공덕(功德)을 쌓은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몸 둘 곳을 친히 마련하시고 허물을 사하시며 도망 온 자를 구제하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대신 속죄하시니 명성과 칭송이 갈수록 높아졌네. 온갖 고난을 겪으시면서 빛나는 공로를 이루셨으니 그 모든 일의 근본과 시초를 따라 너희들도 가르침을 본 받을지라(이벽 1986, 46)

11) 『仲弓問仁 子曰, … 己所不欲 勿施於人. 다산은 서(恕) 자체에 수기(修己)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실천을 위한 '주체의 방법론'이며, 끊임없이 서(恕)를 실천해 감으로써 도덕 주체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석운, 「다산 정약용의 새로운 도덕 이론: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철학연구』 90집, (2004), 98-101. 또한 다산은 충서(忠恕)에 대하여 “모두가 충(忠)으로써 자신을 닦고 서(恕)로써 타인을 다스리고자 하니 이는 몹시 잘못된 것이다. 서(恕)는 자신을 닦을 것이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써 서(恕)를 행하는 것이 충서(忠恕)라고 말할 수 있다.” 정약용, 『국역 여유당전서』 호남학연구소 번역,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174.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였으며, 『성교요지』를 통해 성인의 완전한 삶을 예수그리스도의 실존적 모습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성교요지』는 예수의 희생적 사랑과 전통적 인(仁)의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한 인간 완성을 소개했다. 이벽은 예수의 덕(德)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성교요지』에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유교의 인(仁)을 실현한 완전한 인격체이다. 그의 생애 안에서 그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드러난 인격 전체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도’가 완전히 실현된 완성된 성인으로 묘사할 수 있다.

『성교요지』에서는 인(仁)의 성취가 곧 성(誠)이 실현됨을 전제한다. 성(誠)이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음을 말한다(중용, 16장, 誠者 眞實無妄之謂)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귀의하여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성(誠)에 참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룬 성인(聖人)’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誠)을 따르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성(誠)이란 단어를 분석하면 ‘말씀(言)’과 ‘이루다(成)’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誠)의 실현하신 것처럼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의 처지와 신분에서 따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인간의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덕(德)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성배 2001, 284).

이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덕을 실천한다는 것은(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그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誠)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선비, 농부, 장인, 상인이든 그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각자가 완성해야 할 성(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모든 영역에서 성(誠)을 실현할 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구원의 문제

세계의 여러 종교들 중 유독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분명히 죄의 보편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가르치며, 이 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original sin)이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원죄를 죄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본성(本性)의 선악(善惡)으로 설명한다. 이 본성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일치와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인성의 선악(善惡) 문제에 따라 선악이 구분될 수 있다.(금장태 2005, 68). 그러나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소생하여 공간을 넘어 하늘로 승천하고 어좌에 앉아 심판한다(이벽 1986, 72).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성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方便)이다. 또한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이벽 1986, 70). 이는 기록된 예언의 성취가

며 예언을 확실히 이루어낸 성인(聖人)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꾼과 관리, 가난한 자와 부자, 서로서로가 친근하게 자내야 하며 간곡한 말씀을 진실되어 복종하면 모든 양반이나 상놈, 모두 다 평등하게 받으리라. 신부를 동반하여 함께 나아가 향을 사르고 술을 준비하니 촛불 켜놓고 그 옆에 앉아 거룩한 피 흘리심을 연민하여 부르짖도다((이벽 1986, 68).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종하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구속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벽은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원죄를 거론하고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이벽 1986, 76). 인간은 어른이 되면서 죄에 물들어 간사한 마음을 겸손한 양 겹으로 꾸미고, 해피한 웃음으로 깊은 마음속을 가린다(이벽 1986, 76). 이는 점점 죄악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본래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확충해야 할 도덕적 주체이다. 맹자는 구체적으로 인간 마음 안에 근원적으로 주어져 있는 악을 사단(四端)을 통해 확충함으로써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맹자』, 「공손추상」). 유교에서는 인간에게 악(惡)의 경향성 문제는 본심(本心)의 상실로 말미암아 후천적인 결과이며, 인간의 악(惡)의 원인은 마음의 방심(放心)에 있다.

그러나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도(道)를 본받지 못해 인간들이 범 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도를 배우고 익히는 삶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벽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즉 계율과 이치를 밝히 배우고 전수한다는 의미로서 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제자들의 재주를 헤아려 선교를 부탁하시니 제자들 도를 보호하고 지키며 계율을 닦고 후진을 가르치기에 힘써 밤낮으로 이를 명심하도다. 아이들은 계율을 외우며 부(賦)나 시를 택해 배우고, 연치에 따라 어른들은 이치를 밝히 배우면 도가 원근에 고무 퍼지리도다(이벽 1986, 74).

위의 내용은 사람이 마땅히 바른 도(道)를 구하여 배우기에 힘쓰라는 말이다. 유교에서는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자신의 본성을 도덕적으로 구현할 때 비로소 도(道)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교요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성교요지』에서 설명하는 구원의 문제는 유교적 윤리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벽의 『성교요지』는 영혼불멸, 천국과 지옥, 상벌의 문제를 인간 중심적인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 전통을 넘어서는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만민평등’의 사상에까지 이른 결과라고 본다.

정성스레 섬기고 순종하여라 조만간 죽음 앞에 다다르리니, 육신은 굳센 것이 아니다. 작은 죄라도 숨기면 마음이 스리고 괴로운 것이다. 눈물 흘리며 무서운 근심이 뒤따르리니, 아침마다 익히고 열흘마다 물으며, 육신이 썩는 날이 가까워짐을 두려워하라(이벽 1986, 134).¹²⁾

이는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짐을 두려워하고, 육신이 썩는 날 영혼의 구원을 잃을까를 염려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이벽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모든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다해 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고백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교요지』에서는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내재적인 윤리의 완성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성교요지』에서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 근거하고 있다(이벽 1986, 68). 이는 천당과 지옥, 상벌에 대한 신앙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합당한 윤리적 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고통과 마침내 창끝 아래 죽으심을 항상 생각하여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선혈로 붉게 물든 옷자락을 나무를 꺾어 매질을 하며 목말라 물 찾으매 소금을 탄 포도주를 주고 장딴지를 마구 분질렀으나(이벽 1986, 98)

이처럼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속을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종말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심판을 중심으로 드러난다.

무덤을 열고 시체가 소생하여 공중을 넘어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마련하셨네. 죄가 가벼우면 벌도 가벼우나 한 번 지은 죄 설원하기 어려우니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옥에 떨어짐을 저항할지라(이벽 1986, 72).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양반만 구원받고, 상놈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 가운데서는 평등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세운 인(仁)의 실천이며 성(誠)의 완성이다.

이처럼 『성교요지』의 심판과 구원은 인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도덕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유교적 세계관을 뛰어넘은 새로운 가치의 추구였다.

V. 나가는 말

이벽의 『성교요지』는 한국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당시의 교훈문학적 형식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짤막한 형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였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술함으

12) 정약용은 천(天)을 영명한 주재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본다. 그는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살고 개가 밤을 지키며 짚어대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해가 떴다 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늘이라는 주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상제(上帝)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여 신독(愼獨)하기를 원했다. 결국 신독(愼獨)이란 육체적 개체성이나 윤리적 사유가 작동하지 않아 생기기 마련인 악(惡)의 가능성에 대한 항상 극도의 실존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가지 내면을 점검하는 수양론이다. 이벽의 죄에 대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다산은 신독을 통해 악의 원천을 제거함으로써 천명을 깨닫기를 소원했다. 임부연, 「정약용의 수양론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97-108.

로써 당시의 유학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이벽의 『성교요지』 안에서 서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를 유교적으로 해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한 유학자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유교의 성인을 만난 것이다. 이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인간이 닮아야 되는 모델을 뛰어넘는 신비적 존재였다. 그래서 이벽은 자신이 만난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교요지를 썼던 것이다.

그는 『성교요지』의 전반부를 상제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얻어 타락한 이후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 상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간을 구원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후반부는 성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가를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서술하고 있다. 『성교요지』는 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상제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얻어 타락했으며,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요약하고 있다.

이벽은 『성교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이 구원자는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벽은 유교적 개념인 인(仁)과 성(性)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인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의 실천과 성의 완성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성교요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이벽이 주장한 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이벽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토록 지향하고 싶어서 성인의 삶이 무엇인지, 유교의 성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논어』 .
『맹자』 .
『중용』 .
이벽, 『성교요지』 하성래 번역, (서울: 성요셉 출판사, 1986).
정약용, 『국역 여유당전서』 호남학연구소 번역,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 금장태, 『조선후기 유교와 서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심(心)과 성(性) 다산의 『맹자』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마테오리치, 『천주실의』 송영배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2003).
시마다 겐지, 『주자학과 양명학』 김석근, 이근우 옮김, (서울: 까치, 2003).
줄리아 칭, 『유교와 기독교』, 변선환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서울: 분도출판사, 2001).
윤민구,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최갑중,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서울: UCN, 2005).
- 임부연, 「정약용의 수양론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이석균,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교리 이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김정수, 「『성교요지』의 교리교육학적 고찰」, 『한국교회사논문집2』 3집 (1984).
문석윤, 「다산 정약용의 새로운 도덕 이론: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철학연구』 90집, (2004).
이성배, 「광암 이벽과 그리스도교 사상의 철학(II)」, 『동양철학연구』 제27집 (2002).
원재인, 「순암 안정복과 광암 이벽의 서학 인식」 『교회사학』 4집 (2007).